

보고	2025.8.1.(금) 조간	배포	2025.7.31.(목)	
담당부서	연금감독실	책임자	팀 장	김윤조 (02-3145-5190)
	연금감독팀	담당자	조사역	국가은 (02-3145-5193)

##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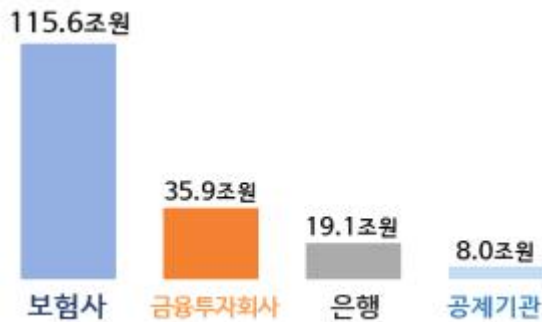
### - 슬기로울 연금생활을 위한 10문 10답 -

#### <그래프로 살펴본 2024년 연금저축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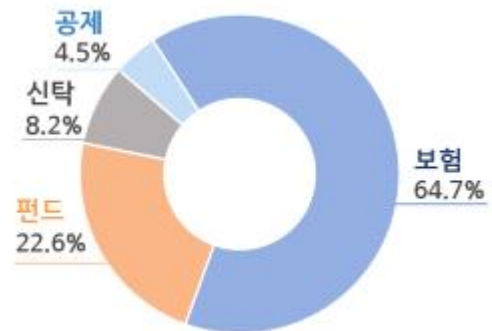
#### 1 연금저축 운용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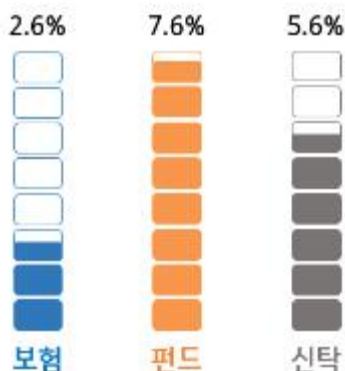
#### 2 판매사별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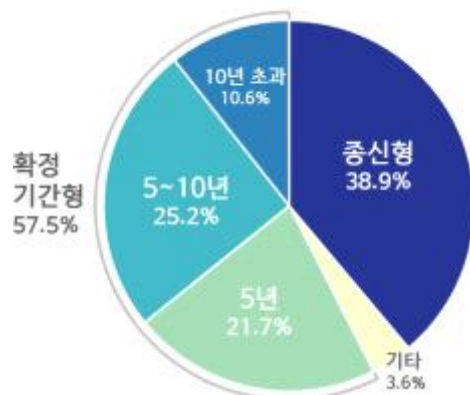
#### 3 상품별 운용현황



#### 4 상품별 수익률



#### 5 연금수령형태별 분포



## 1

## 퇴직연금과 더불어 연금저축에서도 투자 트렌드가 확산 중

2024년말 기준 국내 연금자산은 총 1,823.2조원에 달하며, 이 중 연금저축(178.6조원)은 우리나라의 다층적 연금제도에서 국민연금(1,212.9조원)과 퇴직연금(431.7조원)에 이어 제3층을 구성하고 있다.



2024년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는 총 764.2만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\*(2,915.6만명)보다 전년 대비 더 크게 증가\*\*하는 등 국민들의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.

\* 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(26%)이 연금저축에 가입

\*\* 경제활동인구(통계청) : +11.9만명, 연금저축 가입자 : +41.8만명

연금저축 적립금 총액은 178.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.8조원 증가\*하였다. 특히, 연금저축펀드가 전체 증가액을 넘어서면서(+11.1조원) 성장을 견인하는 등 퇴직연금에 이어 연금저축에서도 투자 트렌드가 확산 중이다.

\* 적립금 증감분(조원) : (전체) +10.8 (펀드) +11.1 (공제) +0.3 (보험) +0.1 (신탁) △0.7

2024년 중 전체 연금저축 연간 수익률은 3.7%로 물가상승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, 연금저축펀드는 전체 수익률의 2배(7.8%)를 기록하였다.

한편, 연금저축이 아직은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을 보완하는 3층 연금 체계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는 못한다\*는 평가를 받고 있다. 이는 연금저축이 가입과 계약유지 모두 개인의 선택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과 적립금의 70% 이상이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수익률이 낮은 안정형 상품에 집중되어 있다는 운용상의 한계에서 비롯된다.

\* 연금저축의 계약당 평균 연금수령액이 연 295만원(월 24.6만원)에 불과

그러나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, 낮은 수수료 비용, 한도없는 자산운용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므로, 윤택한 노후생활을 위해 이를 활용한 적극적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.

## 【 적립금 운용현황 】

2024년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\*은 전년말 대비 10.8조원(6.4%↑) 증가한 178.6조원으로, 지난 5년간 24.5%의 양호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.

\* 적립금(조원, 증감률) : ('19말) 143.4 → ('20말) 152.5 (6.3%↑) → ('21말) 160.9 (5.5%↑) → ('22말) 159.0 (1.2%↓) → ('23말) 167.8(4.4%↑) → ('24말) 178.6 (6.4%↑)

상품별로 살펴보면 연금저축보험 115.5조원, 연금저축펀드 40.4조원, 연금저축신탁 14.7조원, 연금저축공제보험 8.0조원 순으로, 연금저축펀드는 2년 연속 30% 수준의 높은 성장세\*를 기록하였다.

\* 펀드 적립금(조원, 증감률) : ('22말) 22.9 → ('23말) 29.3 (27.9%↑) → ('24말) 40.4 (37.8%↑)

판매회사별로는 보험사 115.6조원, 금융투자회사 35.9조원, 은행 19.1조원, 공제기관 8.0조원으로 나타났다. 금융투자회사가 전년 대비 10.9조원(43.7%↑) 증가하는 등 눈에 띄게 성장한 반면, 보험사는 0.2조원(0.1%↑) 증가에 그치고 은행\*은 0.6조원(0.5%↓) 감소하였다.

\* 은행이 주로 취급하는 연금저축신탁의 신규 판매가 2018년부터 중단된 것에 기인

상품별 적립금(조원,%)

구 분	'22년말	'23년말	'24년말	증감치	증감률	구성비
합 계	159.0	167.8	178.6	+10.8	6.4%↑	(100.0)
보 험	112.9	115.4	115.5	+0.1	0.1%↑	(64.7)
펀 드	22.9	29.3	40.4	+11.1	37.9%↑	(22.6)
신 탁	15.9	15.4	14.7	△0.7	4.5%↓	(8.2)
공 제	7.3	7.7	8.0	+0.3	3.9%↑	(4.5)

## 【 연간수익률 】

2024년 전체 연금저축 연간수익률은 전년(4.6%)대비 0.9%p 하락한 3.7%로 물가상승률은 소폭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였다. 상품별로 살펴보면 연금저축보험 2.6%, 연금저축신탁 5.6%, 연금저축펀드 7.6% 순으로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이 다른 상품에 비해 두드러진다.

이러한 차이는 상품 구조에서 비롯된다.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수수료(사업비)를 차감한 후 각 보험사가 제시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구조\*인 반면,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직접 선택한 펀드 등으로 운용되므로 주식시장 수익률과 연동되는 특징\*\*을 보인다.

\* 보험 수익률(%) : ('22) 2.0 → ('23) 2.6 → ('24) 2.6

\*\* 펀드 수익률(%) : ('22) △24.4 → ('23) 12.6 → ('24) 7.6

한편, 가입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운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비교해 보면,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7.6%로 퇴직연금 IRP(5.9%)보다 약 2%p 높게 나타났다.

이는 실적배당상품에 적립금을 100% 투자가능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와는 다르게 IRP는 70%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제도적 한계에 따라 IRP 적립금의 33.5%만이(2024년말 기준) 실적배당상품에 투자되고 있는 실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.

※ 퇴직연금 수익률은 「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백서(2025.6.9. 보도)」 참고

## 【 가입자 】

2024년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는 764.2만명으로 전년 대비 41.8만명(5.8%↑) 증가하였다. 특이하게도 20세 미만 가입자가 전년 대비 66%(+8.8만명)나 늘어났다. 이는 부모가 자녀의 투자 교육 및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대신 가입한 사례가 증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, ‘평생 소득’ 관점에서 연금자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근로소득 기준으로는 연 근로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가입률은 1.5%에 불과한 한편, 4천만원~6천만원 이하는 10.1%, 6천만원~8천만원 이하는 22.6%, 8천만원~1억원 이하는 34.6% 그리고 1억원 초과는 50.7%로 소득이 많을수록 가입률이 높은 특징이 나타난다.

## 【 연금 수령 】

2024년에 연금저축 수령을 개시(만 55세 이상)한 계좌는 190.2만좌이다. 이 중 장기간 연금수령 방식(확정기간형 10년 초과 및 종신형)을 선택한 비율은 49.5%로 전년(47.4%) 대비 2.1%p 증가하였다.

다만 연금저축 계약당 평균 연금수령액이 연 295만원으로 전년(연 297만원)보다 2만원이 줄었으며, 연 500만원 이하인 계약이 84.1%에 달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.

은퇴 후 생활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.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회사에서 받게 될 퇴직연금만으로는 본인이 꿈꾸는 **윤택한 노후생활**을 영위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직연금 IRP 추가납입 제도와 더불어 **연금저축**이 바로 그 **해결책**이 될 수 있다.

금번 「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보고서」에서는 국민들의 ‘슬기로운 연금 생활’에 도움을 주고자 연금저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10문 10답으로 정리해보았다.

### Q1 연금저축에 왜 가입해야 하나?

#### A1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.

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.

또한 법정 정년은 60세인 반면,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어 5년간의 공백기가 발생한다. 연금저축은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함께 연금 공백기를 채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.

### Q2 일반계좌에서 저축하는 것보다 연금저축이 더 유리한가?

#### A2 그렇다. 적립, 운용, 수령까지 모든 단계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먼저 **적립단계**에서 저축액의 일부(13.2%, 총급여액 5,500만원 이하는 16.5%)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는다.

다음으로 **운용단계**에서는 해외 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연금 수령 시점까지 **이연**된다. 일반 증권계좌라면 15.4%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계좌의 경우 당장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그만큼 재투자하여 수익을 늘릴 수 있다.

마지막으로 **수령단계**에서도 **저율의 세율**이 적용된다. **연금수령 요건\***을 충족하는 경우 **기타소득세율(16.5%)**이 아닌 **연금소득세율(3.3~5.5%)**로 분리과세 된다.

- \* 연금수령 요건 : ① 최초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② 만 55세 이상  
 ③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령

오늘 연금저축펀드계좌에 600만원(세액공제 최대한도)을 납입하고, 20년 뒤인 2045년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보자. 세액공제 받은 99만원을 다시 연금저축으로 납입하여 매년 3%의 수익률을 달성한 경우, 일반 계좌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운용했을 때보다 184만원이 더 유리하다.

### 연금저축펀드계좌 vs 일반계좌

구 분	납입			운용		수령금액
	납입액	세액공제 <sup>1)</sup>	운용원금	운용수익	금융소득세 <sup>2)</sup>	
연금저축펀드계좌	600	99	699	563	-	1,193 <sup>3)</sup>
일반계좌	600	-	600	483	74	1,009

- 1) 세액공제율(지방세 포함, 총급여액 5,500만원 ↓) 16.5%      2) 금융소득세(이자·배당소득세) 15.4%  
 3) 연금소득세(만70세 미만, 연금수령한도 내) 5.5% 차감

### Q3 연금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에는 무엇이 있나?

### A3 현재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2가지 종류가 있다.

※ 연금저축신탁은 '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

**연금저축보험**은 저축보험에 연금 기능을 더한 것으로, **최저보증금리**를 보장하는 **안정형 상품**이다. 보험사가 **알아서 운용**하며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 원금이 **보장**된다는 장점이 있다. 다만 최초 10년동안 7~10%를 수수료로 차감한 뒤 나머지 금액으로 운용하므로 **중도에 해지**하는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다. 수익률도 2~3%로 낮은 편이다.

**연금저축펀드**는 일반 증권계좌와 같이 **ETF, 펀드**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이다. 가입자가 **상품을 직접 선택**하는 등 스스로 **운용**해야 하나 **운용 성과**에 따른 투자 수익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. 만약 상품을 고르기 어려운 경우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**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려**나가는 **TDF(생애주기펀드)** 등을 활용하면 된다.

다만, 수익이 있는 곳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도 따르는 법이다. 때로는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. 따라서 수익성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과 투자 목표를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투자하기를 바란다.

**Q4 퇴직연금 IRP 계좌에 추가납입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?**

**A4 실적배당상품 투자한도와 투자가능상품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.**

퇴직연금 IRP 계좌에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70%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. 반면 연금저축펀드계좌에는 인버스,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만 아니라면 실적배당형에도 100% 투자할 수 있다.

이런 제도 차이는 실제 투자 패턴과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. 2024년말 기준 IRP는 33.5%만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며, 연간 수익률은 IRP 5.9%, 연금저축펀드 7.6%로 나타났다.

한편 IRP의 경우 계좌관리수수료(연간 약 0.3%)가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, 연금저축펀드는 별도의 계좌 관리 수수료가 없어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.

**투자가능상품 비교표**

구 분	연금저축펀드	퇴직연금 IRP
▶ 펀드, ETF, 상장리츠	O (100%)	O (최대 70%)
▶ 적격 TDF(생애주기펀드)	O (100%)	O (100%)
▶ 회사채 등 채권	X	O (최대 70%)
▶ 예금, ELB 등 원리금보장상품	X	O (최소 30%)
▶ 개별 주식	X	X
▶ 레버리지·인버스 ETF	X	X

▶ 근거 법규

- 연금저축펀드 : 소득세법 시행령 §40의2①(기재부), 연금저축계좌 표준실무지침(은행연,금투협,생손보험)
- 퇴직연금 IRP 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§25,26 (고용노동부)

**Q5** 연금저축에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나?

**A5** 매년 1,800만원까지 가능하다.

만약 퇴직연금 IRP 계좌에도 추가납입하고 있다면,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IRP 추가납입액까지 모두 합산하여 1,8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.

세액공제 측면에서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. 퇴직연금 IRP 계좌에도 추가납입하고 있다면, 연금저축과 합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. 연금저축 600만원, IRP 300만원 순으로 납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.

**Q6**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, 중간에 인출할 수 있나?

**A6** 가능하다.

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. 또한 3개월 이상 요양, 천재지변 등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저율의 연금소득세(3.3~5.5%)만 부담하면 된다.

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, 기타소득세(16.5%)를 납부한다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. 다만 이 경우 적립 단계에서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.

**Q7** 소득이 없는 주부,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나?

**A7** 물론이다.

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저축금액을 은퇴 후 연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. 따라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.

직장인,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소득이 없는 주부, 미성년자도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. 참고로 퇴직연금 IRP 계좌 추가납입은 직장인, 자영업자 등만 가능하며 차이가 있다.

## Q8 미성년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?

A8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로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.

연금저축은 장기 투자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다. 자녀가 성인이 되어 소득이 생기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. 참고로 미성년자에게는 10년 단위로 2,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.

## Q9 50대에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도 늦지 않을까?

A9 전혀 늦지 않다. 오히려 50대는 연금저축펀드 가입에 유리한 시기이다.

먼저, 소득과 납입여력 측면에서 최적기이다. 50대는 대부분 소득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로, 세액공제 한도인 연 600만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. 실제로 현재 연 근로소득 1억원 이상 근로자의 50.7%가 가입해 있다.

투자 기간도 충분하다. 55세에 가입하더라도 법정 은퇴연령인 60세까지는 5년, 국민연금 수령 개시인 65세까지는 10년의 적립 기간이 있다. 펀드의 경우 현재 연 7.6%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, 10년간 적립해도 상당한 자산 축적이 가능하다.

## Q10 연금저축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은?

A10 일찍 시작하고, 많이 저축하고, 오랫동안 나눠 받는 것이 핵심이다.

**일찍 시작하기** : 복리의 마법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. 30세부터 30년동안 총 6,000만원을 납입한 경우와 40세부터 20년동안 총 6,000만원을 납입한 경우를 비교해보자. 매년 3%의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가정할 때, 동일한 금액을 납입했음에도 10년 일찍 시작한 것만으로 약 1,500만원을 더 모을 수 있다.

**많이 저축하기** :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, 여력이 된다면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. 연간 납입한도는 1,800만원이므로,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그대로 연금저축에 불입하여 납입금액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

**오랫동안 나눠 받기** : 매년 연금수령한도\* 및 1,500만원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중요하다. 한도 내에서 수령해야만 연금소득세(3.3~5.5%)가 적용되며, 한도를 초과하면 고율의 기타소득세(16.5%)를 납부해야 한다.

또한 수령하지 않은 나머지 잔액은 계속 증식시킬 수 있으므로, 시간이 갈수록 수령 가능한 금액도 늘어난다. 예를 들어 1억원이 있다면 첫해에 1,000만원만 수령하고(세금 55만원), 나머지 9,000만원은 계속 운용하여 다음 해에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.

\* 연간 연금수령한도 = 연금계좌 평가액 ÷ (11 - 연금수령연차) × 1.2

※ 동 자료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금세제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,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·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바람

---

# 2024년 연금지속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

---

2025. 7.



연 금 감 독 실  
(연금감독팀)

# 목 차

<b>I. 적립금 현황</b>	<b>1</b>
<b>II. 계약 현황</b>	<b>3</b>
1. 가입자 및 계약건수	3
2. 신규 및 해지 계약	5
<b>III. 납입 및 연금 수령</b>	<b>7</b>
1. 납입	7
2. 연금 수령	8
<b>IV. 수익률</b>	<b>9</b>
<붙임 1> 개인연금제도 개요	10
<붙임 2> 금융회사별 연금저축 적립금	11

I

적립금 현황

- '24년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78.6조원 (6.4% ↑)
- ▶ 상품별로는 보험(64.7%) > 펀드(22.6%) > 신탁(8.2%) > 공제(4.5%)
- ▶ 판매회사별로는 보험사(64.7%) > 증권(20.1%) > 은행(10.7%) > 공제(4.5%)

□ (전체) '24년말 적립금은 전년(167.8조원) 대비 10.8조원 증가(6.4% ↑)한 178.6조원을 달성

○ 최근 5년간 24.5% 성장을 시현하여 '19년말(143.4조원) 대비 적립금이 총 35.2조원 증가

\* 적립금(조원, 증감률): ['19말] 143.4 → ['20말] 152.5 (6.3% ↑) → ['21말] 160.9 (5.5% ↑) → ['22말] 159.0 (1.2% ↓) → ['23말] 167.8 (4.4% ↑) → **['24말] 178.6 (6.4% ↑)**

적립금

(단위 : 조원, %)

구 분	'22년말	'23년말	'24년말	증감치	증감률	구성비
연금저축 합계	159.0	167.8	178.6	+10.8	6.4% ↑	(100.0)
- 舊개인연금*	42.7	43.1	43.3	+0.2	0.4% ↑	(24.2)
- 연금저축	116.3	124.7	135.3	+10.6	8.5% ↑	(75.8)

\* '94.6월~'00.12월 기간중 판매되었던 상품

□ (상품별) 전체 178.6조원 중 보험이 115.5조원(64.7%)을 차지하고 있으며, 펀드 40.4조원(22.6%), 신탁 14.7조원(8.2%), 공제 8.0조원(4.5%) 順

- 보험(+0.1조원, 0.1% ↑) 및 공제상품(+0.3조원, 3.9% ↑)은 적립금 성장세가 미진
- 펀드 적립금은 전년 대비 37.9%(+11.1조원) 증가하는 등 점유율을 확대
- 신탁은 '18년 신규 판매가 중단된 후로 적립금이 지속 감소 중

상품별 적립금

(단위 : 조원, %)

구 분	'22년말	'23년말	'24년말	증감치	증감률	구성비
합 계	159.0	167.8	178.6	+10.8	6.4% ↑	(100.0)
보 험	112.9	115.4	115.5	+0.1	0.1% ↑	(64.7)
펀 드	22.9	29.3	40.4	+11.1	37.9% ↓	(22.6)
신 탁	15.9	15.4	14.7	△0.7	4.5% ↓	(8.2)
공 제	7.3	7.7	8.0	+0.3	3.9% ↑	(4.5)

- **(판매회사별)** 보험사 115.6조원(64.7%), 금융투자회사 35.9조원(20.1%), 은행 19.1조원(10.7%), 공제 8.0조원(4.5%) 順
- **(보험사)** 생보사가 75.7조원, 손보사는 39.9조원
  - 적립금은 대부분이 보험상품이나, 3개 생보사(삼성,한화,미래)는 펀드 잔고를 0.1조원 보유
  - 상위 3개사는 삼성생명(27.2조원), 삼성화재(19.0조원), 한화생명(11.4조원)으로, 동 3개사가 보험회사 적립금의 54.0%를 차지
- **(금융투자회사)** 증권사가 35.3조원, 자산운용사가 0.6조원
  - 적립금의 99.7%가 펀드 잔고로 이루어져 있으며, NH투자증권만 신탁 잔액을 0.7조원 보유
  - 상위 3개사는 미래에셋증권(13.5조원), 삼성증권(5.9조원), 한국투자(4.6조원)으로, 동 3개사가 금융투자회사 적립금의 66.9%를 차지
- **(은행)** 시중은행 13.9조원, 특수은행 4.6조원, 지방은행 0.6조원 順
  - 적립금은 신탁 14.6조원(75.9%), 펀드 4.5조원(24.1%)로 구성
  - 상위 3개사는 국민은행(5.0조원), 신한은행(3.7조원), 농협은행(3.5조원)
- **(공제기관)** 공제보험상품만 판매하고 있으며, 적립금은 우체국(5.5조원), 새마을금고(1.5조원), 신협(0.5조원), 수협(0.5조원) 順

### 판매회사별 적립금

(단위 : 조원, %)

구 분	'22년	'23년	'24년	구성비	보 험	펀 드	신 탁	공 제
<b>합 계</b>	<b>159.0</b>	<b>167.8</b>	<b>178.6</b>	(100.0)	<b>115.5</b>	<b>40.4</b>	<b>14.7</b>	<b>8.0</b>
보 험 회 사	112.9	115.4	115.6	(64.7)	115.5	0.1	-	-
생명보험사	73.4	75.4	75.7	(42.4)	75.6	0.1	-	-
손해보험사	39.5	40.0	39.9	(22.4)	39.9	-	-	-
금 융 투 자 회 사	19.1	25.0	35.9	(20.1)	-	35.8	0.1	-
은        행	19.7	19.7	19.1	(10.7)	-	4.5	14.6	-
공 제 기 관	7.3	7.7	8.0	(4.5)	-	-	-	8.0

## II

## 계약 현황

- 가입자수는 764.2만명으로 전년 대비 41.8만명 증가(5.8% ↑)
- 계약건수는 969.8만건으로 전년 대비 59.1만건 증가(6.5% ↑)
- ▶ 신규계약은 94.7만건(73.3% ↑), 해지계약은 24.4만건(1.0% ↑)

### 1

### 가입자

- (전체) '24년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\*는 764.2만명으로 전년(722.4만명) 대비 41.8만명 증가(5.8% ↑)

\* 다수계약 가입자로 인해 가입자수(764.2만명)는 계약건수(969.8만건)보다 작음

#### 가입자

(단위 : 천명, %)

구 분	'22년말	'23년말	'24년말	증감치	증감률
연금저축 합계*	7,062	7,224	7,642	+418	5.8% ↑
- 舊개인연금	1,481	1,453	1,426	△27	1.8% ↓
- 연금저축	6,029	6,205	6,640	+435	7.0% ↑

\* 중복 가입자로 인해 舊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의 단순 합계치와는 차이

- (연령별) 4~50대가 전체 가입자의 절반(394만명, 51.6%)을 차지하며, 증여 목적으로 추정되는 20세 미만 가입자가 크게 증가(66.0% ↑)\*

\* 20세 미만 (천명, 증감률): ['22말] 37 → ['23말] 54 (45.9% ↑) → **['24말] 88 (66.0% ↑)**

#### 연령별 가입자

(단위 : 천명, %)

구 분	20세 ↓	2~30대	4~50대	61~65세	65세 ↑
'22년	37	1,875	3,814	717	619
'23년	53	1,864	3,848	745	715
'24년	<b>88</b>	<b>2,013</b>	<b>3,942</b>	<b>776</b>	<b>823</b>
증감률	66.0% ↑	8.0% ↑	2.4% ↑	4.2% ↑	15.1% ↑
비중	(1.1)	(26.4)	(51.6)	(10.1)	(10.8)



□ **(근로소득별)**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가입률이 높은 특징

- 年 근로소득이 4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가입률은 1.5%에 불과하나, 납입여력이 있는 1억 초과 근로자의 가입률은 50.7%에 달함\*

\* 근로소득구간별 가입률(%) : [4~6천] 10.1 [6~8천] 22.6 [8천~1억] 34.6 [1억↑] 50.7

**근로소득구간별 가입자**

(단위 : 천명)

구 분	2천↓	2~4천	4~6천	6~8천	8천~1억	1억↑	전 체
가입률(B/A)	0.1%	2.5%	10.1%	22.6%	34.6%	50.7%	10.0%
가입자수(B)	6	180	370	439	393	706	2,094
급여소득자수(A)	5,433	7,266	3,682	1,943	1,136	1,393	20,852

\*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기준('24년 국세통계연보)

**2 계약건수**

- **(전체)** '24년말 기준 계약건수는 969.8만건으로 전년(910.7만건) 대비 59.1만건 증가(6.5%↑)

\* 계약건수(만건, 증감률) : ['22말] 887.3 → ['23말] 910.7 (2.6%↑) → **['24말] 969.8 (6.5%↑)**

- **(상품별)** 전체 계약 969.8만건 중 펀드가 46.8%(453.9만건)을 차지하며, 보험 42.4%(411.3만건), 신탁 6.9%(66.9만건), 공제 3.9%(37.7만건) 順

**상품별 계약건수**

(단위 : 천건, %)

구 분	'22년말	'23년말	'24년말	증감치	증감률	구성비
전 체	8,873	9,107	9,698	+591	6.5%↑	(100.0)
보 험	4,373	4,278	4,113	△165	3.9%↓	(42.4)
펀 드	3,382	3,742	4,539	+797	21.3%↑	(46.8)
신 탁	757	714	669	△45	6.2%↓	(6.9)
공 제	361	373	377	+4	+1.1%↑	(3.9)

## 가. 신규계약

- **(전체)** '24년 중 신규계약은 총 94.7만건으로 전년(54.6만건) 대비 40.1만건 증가(73.3% ↑)
  - **(상품별)** 보험 및 공제상품 신규계약은 전년 대비 각각 1.6만건 (15.8% ↓), 0.7만건(25.4% ↓) 감소한 한편,
    - 펀드의 신규계약은 전년 대비 42.6만건 증가(102.0% ↑) 하였으며, 대부분(97.7%)이 증권사에서 발생
    - 회사별로는 삼성(28.0%), 미래에셋(23.9%), 한투(11.6%) 등 M/S 상위 3개사 및 '24.11월 사업을 신규 개시한 카카오페이증권(10.3%) 順
- ※ 신탁상품은 '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

## 상품별 신규계약

(단위 : 건, %)

구 분	'23년	'24년	증감치	증감률	구성비
전 체	546,521	947,203	+400,682	73.3% ↑	(100.0)
보 험	101,140	85,128	△16,012	15.8% ↓	(9.0)
펀 드	416,005	840,157	+424,152	102.0% ↑	(88.7)
신탁	29,376	21,918	△7,458	25.4% ↓	(2.3)

## 회사별 신규계약

## &lt; 보험 &gt;

(단위 : 만건)

권역	판매사	건수	구성비
생보	삼성생명	3.2	(38.1)
생보	한화생명	1.5	(18.2)
생보	농협생명	6.8	(8.0)
손보	삼성화재	4.9	(5.8)

...

전 체	8.5	(100.0)
-----	-----	---------

## &lt; 펀드 &gt;

(단위 : 만건)

권역	판매사	건수	구성비
증권	삼성증권	23.5	(28.0)
증권	미래에셋증권	20.1	(23.9)
증권	한국투자증권	9.7	(11.6)
증권	카카오페이증권	8.6	(10.3)

...

전 체	84.0	(100.0)
-----	------	---------

## 나. 해지계약

- **(전체)** '24년 중 중도해지된 계약은 **24.4만건**(1.0% ↑)
  - '23년말 계약(910.7만건)기준 '24년 해지율은 **2.5%** 수준
  - 중도해지 금액은 **3.5조원**으로 전년(3.7조원) 대비 0.2조원 감소(6.1% ↓)
- **(사유별)** 해지계약의 대부분(95.6%, 23.3만건)이 ①**임의해지**(전세보증금 마련,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)이며, 소득세법 상 중도해지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는 ②**부득이한 사유**로 인한 해지(천재지변, 사망, 요양 등)는 **4.4%**(1.1만건)
  - ※ ①임의 해지 : 16.5%의 기타소득세 vs ②부득이한 사유 : 3.3~5.5%의 연금소득세

### 해지사유별 해지계약

(단위 : 건, 억원, %)

구 분	해지계약 건수				해지금액			
	'23년	'24년	증감률	구성비	'23년	'24년	증감률	구성비
전 체	241,745	244,136	1.0% ↑	(100.0)	37,884	35,588	6.1% ↓	(100.0)
임의해지	230,546	233,385	1.2% ↑	(95.6)	33,144	31,262	5.7% ↓	(87.8)
부득이한 사유	11,199	10,751	4.0% ↓	(4.4)	4,740	4,327	8.7% ↓	(12.2)

#### ※ '24년 연금저축계약 변동내역

- ◆ '24년 중 <sup>1</sup>신규계약(+94.7만건)에 연금수령이 종료된 <sup>2</sup>만기계약(△5.3만건), <sup>3</sup>해지계약(△24.4만건) 등이 반영된 **연간 유효 순증계약은 59.1만건**
- ▶ 펀드는 +79.7만건 순증가한 반면, 보험 및 신탁은 각각 △16.5만건, △4.5만건씩 **순감소**
- ▶ 보험은 그간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, 기존 계약의 만기도래 증가와 신규 계약 부진으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\*

\* 보험계약 비중(% , 증감치) : ['22년] 49.3 → ['23년] 47.0(△2.3%p) → **['24년] 42.4(△4.6%p)**

(단위 : 천건)

구 분	'23년말	<sup>1</sup> 신규⊕	<sup>2</sup> 만기⊖	<sup>3</sup> 해지⊖	기타*	'24년말	증감치	구성비
전 체	9,107	+947	△53	△244	△55	9,698	+591	(100.0)
보 험	4,278	+85	△38	△132	△80	4,113	△165	(42.4)
펀 드	3,742	+840	△6	△76	△39	4,539	+797	(46.8)
신 탁	714	-	△8	△23	△14	669	△45	(6.9)
공 제	373	+22	△1	△13	△4	377	+4	(3.9)

\* 금융회사 간 계좌이체, 부활, 효력상실 등

### Ⅲ

## 납입 및 연금 수령

- ▣ '24년중 납입액은 11.4조원(22.2% ↑), 연금수령액은 5.6조원(8.9% ↑)
- ▶ 계약당 납입액\*은 342만원(24.3% ↑),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295만원(0.7% ↓)
- \* 납입액이 "0원"인 계약을 제외한 계약당 납입액

### 1 납입

- (전체) '24년 중 납입액은 11.4조원으로 전년(9.3조원) 대비 2.1조원(22.2% ↑) 증가
  - 계약당 납입액은 342만원으로 전년(275만원) 대비 67만원 증가(24.3% ↑)
- (상품별) 보험(10.1% ↓)·신탁(11.8% ↓) 납입액은 감소하는 한편, 공제(+2.0% ↑)는 소폭 증가하고 펀드(79.8% ↑)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\*
  - \* 펀드 납입액(조원, 증감률) : ['22년] 2.6 → ['23년] 3.3 (26.7% ↑) → ['24년] 5.9 (79.8% ↑)

#### 연간 납입액

(단위 : 억원, 만원, %)

구 분	연간 납입액(억원)				계약당 납입액(만원)		
	'23년	'24년	증감률	구성비	'23년	'24년	증감치
전 체	93,336	114,034	22.2% ↑	(100.0)	275	342	+67
보 험	48,324	43,456	10.1% ↓	(38.1)	253	258	+5
펀 드	32,845	59,061	79.8% ↑	(51.8)	325	405	+80
신 탁	6,450	5,686	11.8% ↓	(5.0)	297	299	+2
공 제	5,717	5,831	2.0% ↑	(5.1)	219	223	+4

- (분포) 年 납입금액 700만원 이하가 대부분(90.4%)을 차지하고 있으며
  - 7~18백만원 이하(344천건)는 전년 대비 150.5% 증가(+207천건)한 반면, 1~4백만원 이하(1,710천건)는 8.3% 감소(△155천건)하는 등 상반된 양상

#### 납입금액별 계약건수 분포

(단위 : 천건)

구 분	0원	1백 ↓	1~2백	2~3백	3~4백	4~7백	7~18백 ↓	합 계
'23년	5,630	709	889	600	376	680	137	3,392
'24년	6,007	815	781	587	342	702	344	3,571
증감률		14.9% ↑	12.2% ↓	2.1% ↓	9.2% ↓	3.3% ↑	150.5% ↑	5.3% ↑
비중		(22.8)	(21.9)	(16.4)	(9.6)	(19.7)	(9.6)	(100.0)

2

**연금 수령**

- **(전체)** '24년 중 연금수령액은 5.6조원으로 전년(51.5조원) 대비 0.5조원 (8.9% ↑) 증가
  - **상품별** 연금수령액은 **보험**(3.9조원), **펀드**(0.9조원), **신탁**(0.6조원), **공제**(0.2조원) 順
  - **계약당** 연금수령액은 年 **295만원**으로 전년(297만원) 대비 2만원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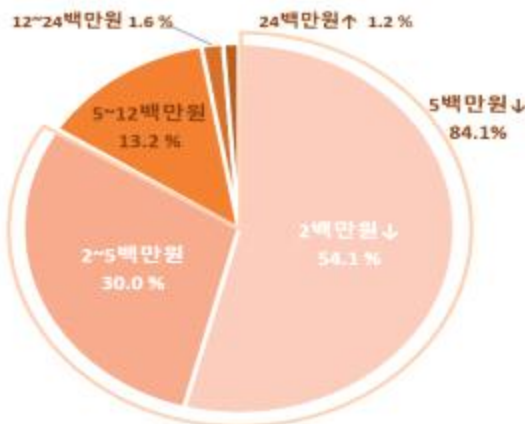
**연간 연금수령액**

(단위 : 억원, 천건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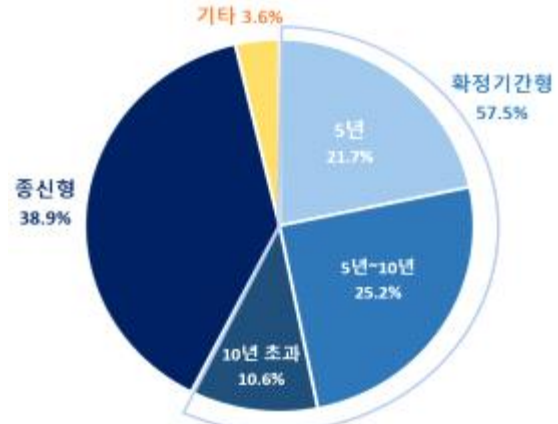
구 분	연간 수령액(억원)			수령 계약수(천건)		계약당 수령액(만원)		
	'23년	'24년	증감률	'23년	'24년	'23년	'24년	증감치
전 체	51,492	56,077	8.9% ↑	1,735	1,902	297	295	△2
보 험	35,894	39,004	8.7% ↑	1,496	1,640	240	238	△2
펀 드	7,553	8,724	15.5% ↑	140	165	538	529	△9
신 탁	6,435	6,594	2.5% ↑	98	97	656	682	+26
공 제	1,610	1,755	9.0 ↑	54	60	298	291	△7

- **(수령금액)** 年 수령액 5백만원 이하가 대부분(84.1%)이며, 5~12백만원 (13.2%), 12백만원 초과(2.7%) 順
- **(수령형태)** 연금 개시 후 수령형태는 **확정기간형**(57.5%), **종신형**(38.9%), **확정금액형**(3.3%), **혼합형**(0.3%) 順
  - 연금수령을 개시한 계약 중 **장기수령계약**(종신형 및 10년 초과) 비중은 **49.5%**로 전년(47.4%) 대비 2.1%p 증가

**수령금액별 분포**



**수령형태별 분포**



## IV

## 수익률

▣ '24년 연금저축상품 수익률은 3.7%(0.9%p ↓)

▶ 상품별로는 펀드(7.6%) > 신탁(5.6%) > 보험(2.6%)

□ '24년 연금저축상품의 年 평균 수익률은 3.7%로 전년(4.6%)대비 0.9%p 하락

□ (상품별) 보험 수익률은 2.6%로 전년과 동일한 수치인 한편, 신탁 및 펀드계좌 수익률은 각각 5.6%, 7.6%로 전년 대비 다소 하락

○ 보험 수익률은 공시이율과 유사한 추이\*를 보이고 있으며,

\* 보험상품 수익률(%): ['22년] 2.0 → ['23년] 2.6 → **['24년] 2.6**

공시기준이율(% , 보험개발원): ['22년] 2.8 → ['23년] 3.7 → **['24년] 3.3**

※ 납입보험료에 사업비 차감 후 공시이율을 부리하므로, 수익률은 공시이율보다 낮음

○ 펀드계좌는 투자수익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상품으로, 여타 상품 대비 수익률이 높은 경향

### 연금저축상품 연평균 수익률

(단위 : %)

구분	보 험	신 탁	펀 드	전 체
'22년	2.0	△0.5	△24.4	△2.3
'23년	2.6	6.2	12.6	4.6
'24년	<b>2.6</b>	<b>5.6</b>	<b>7.6</b>	<b>3.7</b>

\* 통합연금포털에 공시 중인 연금저축('01년 이후 판매)상품 수익률을 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

## 붙임1

## 개인연금제도 개요

□ 현행 개인연금은 소득세법에서 인정되는 금융상품으로 연금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세제적격(연금저축)과 비적격(비과세연금)으로 구분

① **적격 개인연금(연금저축)** :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\*을 받는 연금저축계좌

\* 1) 5년 이상 불입, 2) 55세 이후 인출 개시,  
3) 연간 인출한도(1,500만원)를 충족하여 10년 이상 분할 인출

- **(납입 시)** 납입액에 대해 연 600만원 한도 세액공제\*

\* (세액공제) 종합소득 4.5천만원(근로소득 5.5천만원) 이하 15%, 초과 12%

※ 개인형 퇴직연금제도(IRP)와 합산하는 경우,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

- **(연금 수령시)** 연령별로 저율(3.3~5.5%)의 연금소득세\* 부과

\* 연금소득세율 : (55~70세) 5.5%, (70~80세) 4.4%, (80세 이상) 3.3%

- **(연금外 수령시)** 연금수령액이 연간 인출한도(1500만원)를 초과하거나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, 연금外 수령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거나, 16.5%의 세율로 분리과세

### 상품별 연금저축 개요

구분	연금저축보험	연금저축신탁*	연금저축펀드
주요 판매사	보험사, 은행, 공제기관	은행	증권사, 은행
납입방식	정기납입	자유적립식	자유적립식
적용금리	공시이율	실적배당	실적배당
연금수령방법	확정기간 종신(생보만)	확정기간	확정기간
예금자보호	○	○	X

\* 연금저축신탁은 '18년부터 신규 판매 중단

② **비적격 개인연금(비과세 연금보험)** :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, 10년 이상 유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보험계약\*

\* 장기저축성 보험(납입기간 5년 & 유지기간 10년 & 월 150만원 ↓ 적립식 저축보험), 즉시연금(만기 10년 ↑ & 보험료 1억원 ↓)

## 붙임2

## 금융회사별 연금저축 적립금

(단위 : 억원, %)

권역	금융회사명	보험	신탁	펀드	전체	권역 내	시장 내
						구성비	구성비
생보 (21)	삼성생명	271,749	-	615	272,364	(36.0)	(15.3)
	한화생명	132,150	-	11	132,161	(17.5)	(7.4)
	교보생명	114,784	-	-	114,784	(15.2)	(6.4)
	농협생명	97,587	-	-	97,587	(12.9)	(5.5)
	미래에셋생명	25,003	-	488	25,491	(3.4)	(1.4)
	케이디비생명	18,255	-	-	18,255	(2.4)	(1.0)
	흥국생명	17,083	-	-	17,083	(2.3)	(1.0)
	IBK연금	14,767	-	-	14,767	(2.0)	(0.8)
	신한라이프생명	14,611	-	-	14,611	(1.9)	(0.8)
	동양생명	10,875	-	-	10,875	(1.4)	(0.6)
	에이비엘생명	10,255	-	-	10,255	(1.4)	(0.6)
	푸본현대생명	9,256	-	-	9,256	(1.2)	(0.5)
	KB라이프생명	8,045	-	-	8,045	(1.1)	(0.5)
	DB생명	2,449	-	-	2,449	(0.3)	(0.1)
	IM라이프생명	2,321	-	-	2,321	(0.3)	(0.1)
	하나생명	2,108	-	-	2,108	(0.3)	(0.1)
	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	1,997	-	-	1,997	(0.3)	(0.1)
	메트라이프생명	1,899	-	-	1,899	(0.3)	(0.1)
	라이나생명	100	-	-	100	(0.0)	(0.0)
	처브라이프생명	87	-	-	87	(0.0)	(0.0)
	AIA생명	31	-	-	31	(0.0)	(0.0)
<b>생보 소계</b>	<b>755,413</b>	<b>-</b>	<b>1,114</b>	<b>756,527</b>	<b>(100.0)</b>	<b>(42.4)</b>	
손보 (10)	삼성화재	220,055	-	-	220,055	(55.1)	(12.3)
	현대해상	62,628	-	-	62,628	(15.7)	(3.5)
	DB손보	41,372	-	-	41,372	(10.4)	(2.3)
	KB손보	39,376	-	-	39,376	(9.9)	(2.2)
	메리츠화재	15,210	-	-	15,210	(3.8)	(0.9)
	한화손보	10,133	-	-	10,133	(2.5)	(0.6)
	롯데손보	6,439	-	-	6,439	(1.6)	(0.4)
	흥국화재	3,031	-	-	3,031	(0.8)	(0.2)
	하나손보	544	-	-	544	(0.1)	(0.0)
	MG손보	426	-	-	426	(0.1)	(0.0)
<b>손보 소계</b>	<b>399,215</b>	<b>-</b>	<b>-</b>	<b>399,215</b>	<b>(100.0)</b>	<b>(22.4)</b>	
은행 (16)	국민은행	-	37,777	12,395	50,172	(26.3)	(2.8)
	신한은행	-	32,746	4,001	36,746	(19.2)	(2.1)
	농협은행	-	33,159	1,822	34,981	(18.3)	(2.0)
	하나은행	-	13,271	21,256	34,527	(18.1)	(1.9)
	우리은행	-	11,129	3,025	14,154	(7.4)	(0.8)
	기업은행	-	4,883	1,443	6,326	(3.3)	(0.4)
	부산은행	-	4,443	-	4,443	(2.3)	(0.2)
	산업은행	-	3,842	-	3,842	(2.0)	(0.2)
	IM뱅크	-	2,021	-	2,021	(1.1)	(0.1)
	수협은행	-	541	182	723	(0.4)	(0.0)
	씨티은행	-	716	-	716	(0.4)	(0.0)
	광주은행	-	48	646	694	(0.4)	(0.0)
	SC은행	-	626	30	656	(0.3)	(0.0)
	경남은행	-	524	-	524	(0.3)	(0.0)
	전북은행	-	139	124	264	(0.1)	(0.0)
	제주은행	-	106	129	235	(0.1)	(0.0)
<b>은행 소계</b>	<b>-</b>	<b>145,971</b>	<b>45,054</b>	<b>191,025</b>	<b>(100.0)</b>	<b>(10.7)</b>	

권역	금융회사명	보험	신탁	펀드	전체	권역 내	시장 내
						구성비	구성비
금융투자 (33)	미래에셋증권	-	-	135,473	135,473	(37.8)	(7.6)
	삼성증권	-	-	58,612	58,612	(16.4)	(3.3)
	한국투자증권	-	-	46,035	46,035	(12.8)	(2.6)
	NH투자증권	-	737	33,192	33,928	(9.5)	(1.9)
	KB증권	-	-	15,680	15,680	(4.4)	(0.9)
	키움증권	-	-	13,178	13,178	(3.7)	(0.7)
	하나증권	-	-	11,317	11,317	(3.2)	(0.6)
	신한투자증권	-	-	10,721	10,721	(3.0)	(0.6)
	우리투자증권	-	-	8,557	8,557	(2.4)	(0.5)
	한화투자증권	-	-	6,463	6,463	(1.8)	(0.4)
	KCGI자산운용	-	-	5,638	5,638	(1.6)	(0.3)
	유안타증권	-	-	3,178	3,178	(0.9)	(0.2)
	신영증권	-	-	2,497	2,497	(0.7)	(0.1)
	대신증권	-	-	2,137	2,137	(0.6)	(0.1)
	DB금융투자	-	-	945	945	(0.3)	(0.1)
	IM증권	-	-	941	941	(0.3)	(0.1)
	SK증권	-	-	807	807	(0.2)	(0.0)
	현대차증권	-	-	690	690	(0.2)	(0.0)
	교보증권	-	-	549	549	(0.2)	(0.0)
	카카오페이증권	-	-	490	490	(0.1)	(0.0)
	메리츠증권	-	-	224	224	(0.1)	(0.0)
	유진투자증권	-	-	131	131	(0.0)	(0.0)
	한화자산운용	-	-	113	113	(0.0)	(0.0)
	에셋플러스자산운용	-	-	105	105	(0.0)	(0.0)
	IBK투자증권	-	-	102	102	(0.0)	(0.0)
	LS증권	-	-	47	47	(0.0)	(0.0)
	케이프투자증권	-	-	6	6	(0.0)	(0.0)
	한양증권	-	-	3	3	(0.0)	(0.0)
	다올투자증권	-	-	1	1	(0.0)	(0.0)
	BNK투자증권	-	-	1	1	(0.0)	(0.0)
	부국증권	-	-	-	-	(0.0)	(0.0)
	리딩투자증권	-	-	-	-	(0.0)	(0.0)
	상상인증권	-	-	-	-	(0.0)	(0.0)
<b>증권 소계</b>	-	<b>737</b>	<b>357,832</b>	<b>358,569</b>	<b>(100.0)</b>	<b>(20.1)</b>	
공제 (4)	우체국	55,251	-	-	55,251	(68.6)	(3.1)
	새마을금고	14,721	-	-	14,721	(18.3)	(0.8)
	신협	5,494	-	-	5,494	(6.8)	(0.3)
	수협	5,122	-	-	5,122	(6.4)	(0.3)
	<b>공제 소계</b>	<b>95,967</b>	-	-	<b>95,967</b>	<b>(100.0)</b>	<b>(4.5)</b>
<b>총 계</b>	<b>1,235,216</b>	<b>146,708</b>	<b>404,000</b>	<b>1,785,924</b>	<b>(100.0)</b>	<b>(100.0)</b>	